

### 2026 병오년 태사묘 춘향제 엄숙하게 봉행

안동태사묘관리위원회(위원장 장우진)가 주최하는 "2026년 병오년 태사묘 춘향제"가 4월 3일(음력 2월 16일) 오전 10시 안동시 태사길(북문동) 태사묘우(太師廟宇)에서 안동 권씨, 안동 김씨, 안동 장씨 등 삼성(三姓)의 참제관(參祭官)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奉行)하였다.

이날 안동지방의 기온이 영상 8도로 전형적인 봄 날씨로 제례를 올리기에 적당한 날씨였다.

이 자리에 권용주(성균관유도회 안동지부 회장), 권현종 부호장공파회장, 권순복 전 정조공파회장, 권오의 대종회안동사무국장, 김정동 안동김씨화수회장, 김동량 대한노인회 안동시지부장,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장, 김의승 전 서울시행정부시장, 김대일 경북도의회 정책연구회회장, 황순녀 안동시장 부인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태사묘 숭보당(崇報堂) 마루위에서 권재규(부정공파) 집필자가 분정례(分定禮)를 시작, 초헌관 김민한(金敏漢: 전 부산대학교 교수), 아헌관 권용주(權容柱: 성균관유도회 안동지부 회장), 종헌관 정용준(張用俊), 집례 김국한(金國漢), 축관 김준동(金準東), 장진걸(張鎭杰), 권순복(權純福) 등을 40여분에 걸쳐서 집필하였다.

분정례가 끝나자 헌관과 찬자, 축관들은 숭보당 마루위에서 관복(冠服)으로 갈아입고 초헌관을 선두로 삼성의 후손들이 뒤를 따라 태사묘우로 이동하였다. 김국한 집례의 창용(唱用)에 따라 삼성의 축관들이 자신들의 시조 위패 앞에서 서있고 이어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들이 차례로 태사묘우로 들어가 분향, 헌작한 후 3명의 축관들이 함께 축을 낭독하는 등 1시간에 걸친 춘향제를 마치고 숭보당 앞 잔디밭에서 단체로 기념 촬영을 하였다.

기념촬영을 마친 삼성의 참제관들은 숭보당 마루에서 음복례(飲福禮)를 한 후



"2026년도 태사묘 대당회의(大堂會議)를 가졌다. 권순길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도유사 인사, 위원장 인사, 경과보고, 감사보고, 자산보고, 2025년도 결산보고, 2026년도 예산안, 기타 토의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김민한 도유사는 인사말에서 "삼태사님들은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헌신하셨으며 안동의 기초를 닦으셨고 선조의 혜택을 입은 우리 후손들은 정통정신을 이어 받아야하며 오늘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태사묘관리위원회에 감사의 인사를 한다"고 말했다.

장우진 위원장도 인사말에서 "오늘 춘향제 때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죄송하다"며 "임기 2년 동안 태사묘를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순길 사무국장은 작년 10월 31일 '고려의 길을 걷다'는 제목으로 태사묘에서 전통복식을 시연하는 등 크고 작은 행사 20건을 경과 보고했다. 곧 이어 김국한 감사의 감사보고, 권순길 국장의 2025년도 결산보고, 2026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기타 토의에서 안동시 서후면 오산리 소하천복구사업에 태사묘 소유 논의 편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2년간 태사묘관리위원장은 안동김씨 김국한(金國漢)씨가 선임되었다고 밝혔다. 주회 측은 참석자 전원에게 점심식대비로 1인당 2만원씩 지급하고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

### 신중년, 침묵의 의미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이

권원희 (한국평생직업교육원장/36세 북야공파)



훨씬 단단하게 만듭니다. 38년 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신중년을 만났습니다. 노후가 외롭지 않은 분들의 공통점은 관계가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곁에 있었습니다. 억지로 이어 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남아 있는 관계, 그것이 인생 후반을 지탱하는 진짜 자산이었습니다. 신중년의 관계는 늘리는 관계가 아니라 남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남는 관계는 대부분 침묵을 함께 견뎌낸 관계입니다.

**말 수는 줄이고 사이는 넓히는 시기**  
신중년의 침묵은 단순히 말을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지는 과정입니다. 말이 많을 때는 상대를 설득하려 합니다. 내 생각을 전달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나 침묵할 때는 상대를 이해하게 됩니다. 말 대신 표정을 읽고, 목소리 대신 마음을 듣게 됩니다. 내가 말을 멈출 때 비로소 상대가 보이게 시작합니다.

지자불언 언자부지(知者不言 言者不知).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는 노자의 말이 신중년의 나이에 비로소 몸으로 와닿습니다. 젊은 날에는 그저 문자였던 그 말이, 살아온 날들의 무게와 함께 비로소 진심으로 읽힙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포기기가 아닙니다. 더 깊이 들겠다는 선택입니다.

**맺음말 - 침묵이 만드는 편안한 관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지나는 시간이 만들어 주는 선물입니다.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을 때, 서로의 침묵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을 때, 그 관계는 조용히 깊어집니다.

40대라면 지금부터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5060이라면 이미 곁에 있는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한 명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 후반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신중년의 침묵은 관계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를 줄이는 것. 그것이 인생 2막을 가장 품격 있게 여는 첫 문장입니다.

나답게, 너답게, 우리답게, 정당하게, 아름답게, 동반성장합시다!

### 재부산 감정공중친회 제58차 정기총회



부산중친회 내 재부 감정공 중친회(회장 권정수)는 지난 3월 19일(목) 저녁, 제 5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감정공(16세, 휘 執功) 선조는 북야공파로 문단공(13세 휘 漢功)의 증손이요, 화원군(휘 仲楚)의 손자이며, 정정공(휘 嗣宗)의 아들로서

서부 경남인 함천에 터 잡으신 분이다. 이날 정기총회는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순에 따라 국민의례, 시조님께 명배에 이어서 참석 인사 소개는 별도 소개 없이 회장부터 돌아가며 자기소개에 인사 말을 덧붙이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이어

서 경과보고에서 견산(재영) 총무는 재부 감정공중친회 역사와 역대 회장 소개 및 작년과 올 상반기 중 봉사 설명에 덧붙여, 올해 주요 일정인 4.6. 시조 춘향, 4.25. 권문 체육대회, 5.16. 부산 정기총회 등을 공지하면서 많은 참여를 부탁하였다.

다음은 청암(임호) 감사의 감사보고와 총무의 토의 자료에 대한 제안 보고가 있었으며, 이어서 해광(정수) 회장 주재로 결산 승인, 기타 토의로 진행되었고, 마지막 순서인 임원 선출은 운산(중원) 원로회장 사회로 회장에 임호 축진, 부회장에 생희(서령공계), 송근(삼괴대계), 춘식(사직공계), 언진(참봉공계) 축진을 선임하고, 감사는 선현 축진, 총무는 유임으로 결정되었다.

특히 해광 회장을 필두로 20여 명이 200여만 원을 협찬하고 기념 타일도 증정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며, 회의 후 장소소를 옮긴 만찬장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화포를 풀고 정담도 나누면서, 죽친끼리 운정이 담긴 술잔을 주고받으며 화기에 애한 가운데 총회를 파하였다. 권재영 감정공중친회 총무

### 영주중친회 2026년도 정기총회개최

영주중친회(회장 권중수)가 지난 4월 1일 영주시내 축협프라자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종친간 화합과 전통 계승 의지를 다졌다. 이날 총회에는 권영창 대총회장과 권기호 장상문화장학재단 이사장, 권무탁 전 영주유도회장·권영순 영주새마을금고 이사장, 권영표, 권춘탁, 권영대, 권중후, 권오중 고문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오전 10시 30분 권오철 사무국장의 사회로 열린 개회식은 국민의례, 태사공 시조님께 대한 명배, 참석 인사 소개, 회장 인사말, 장학금 전달, 격려사, 축사, 결산보고, 현안사항 토의, 오찬 순으로 이어졌다.

본회 고문이며 장상문화장학재단 이사장이신 권기호 님이 출연해주신 장학금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권순규(영상대), 권연태(대영고), 권오재(경북일고), 권중철(대영고), 권보성(제일고), 권민석(대영고) 등 6명에게 각 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권중수 회장은 1963년 영주중친회 발족 이후 선대가 지켜온 송조정신과 화합의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중친회가 더욱 발전하도록 후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참여하자고 말했다. 권 회장은 또 오는 4월 25일 순흥비세상에서 영주청년회가 주최하는 안동권씨전국체육대회는



전국 32개 지역에서 많은 축진들이 참여하므로 우리 회원 모두 적극 참여해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영창 대총회장은 축사를 통해 매년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것은 임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중친회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서로 소통하면서 대총회가 추진하는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자고 말했다. 권무탁 고문도 회의를 가득 메운 모습을 보니 큰 힘이 된다고 중친의 역량을 모아 이번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자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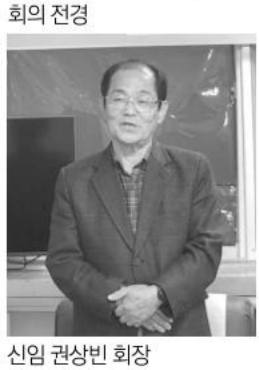
이어진 2부 회의에서는 권원숙 감사 감사보고와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 결산보고를 하고 202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어서 권오현 청년회장

이 전국체육대회준비계획을 보고했으며 임원 개선을 위하여 권연태 부회장을 임시회장으로 선출하여 임기만료된 회장, 감사, 상임위원 선출은 총회 논의의 결과 현 권중수 회장과 집행부 전원이 2년간 연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영주중친회가 1천만원, 영주화친회가 1백만원을 청년회에 전달하며 종친간의 협력을 다졌다. 영주중친회는 이날 선조의 송조정신을 계승하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전통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모으며 총회를 마무리했다.

권오현 영주중친회 사무국장

### 부산 천등회 제23대 회장 취임



부산 중친회 산하 천등회(회장 권순식)는 지난 4월 10일(금) 저녁 전포동 중친회관에서 제45차 정기총회를 열

었다. 중친회 원로 어르신과 단체 대표를 비롯한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정기총회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시조님께 명배와 종친 회원 소개에 이어 회장 인사와 축사 격려사로 진행되었다. 중친회 송계(김상) 고문은 격려사에서 중친회 역사와 맥을 같이한 천등회는 역사도 깊고, 원로가 모두 참여하는 으뜸 단체로 처음에는 시조님 춘추 향사에 참여

한 종친에게만 회원 자격을 인정할 만큼 송조 정신이 높은 단체였음을 회고하면서 앞으로도 송조 애족 정신을 키워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송암(성용) 명예회장은 모임 초기부터 참여한 50년 가까운 세월을 되돌아 본 뒤, 지난 춘향 때처럼 앞으로 도 종사와 종친 모임에 솔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운산(중원) 원로회 회장도 천등회의 무궁한 발전과 활성화를 기원하는 인사말을 전하였다.

연이어 재문 감사의 감사 보고와 임호 총무의 결산 보고가 끝난 후에 차기 집행부 선출에 들어가 제23대 신임 회장에 상빈(33세, 북야공파) 부회장을, 부회장에는 재문 축진을, 감사에는 영인, 임호 축진을 선정하였으며 신임 회장은 기하 축진을 총무로 지명하였다.

신임 상빈 회장은 인사말에서 주변의 권유로 회장을 맡게 되었지만 경험도 없고 아는 것이 없으니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한다며, 이왕 말았으니 성심성의를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후 정기총회는 새 임원진의 인사를 끝으로 폐회하고 자리를 옮겨 만찬을 나누며 축진 간에 화기에애한 시간을 가졌다. 권재영 부산사무국장

### 2026 재안파중회장친목회 제32회 3월 격월 회의 개최

재안파중회장친목회(在安派會長親睦會: 회장 권영진) 제32회 3월 격월 회의가 3월 27일 오후 6시 안동시 평화9길 46-13 (평화동) "한정식 청운"에서 회원 1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한 회원은 권계동, 권기호, 권주연 등 3명의 고문을 비롯하여 권영진 친목회장, 권오준 전 부정공파회장, 권중근 시중공파회장, 권영택, 권순복 전 정조공파회장 2명, 권오의 대총회 안동사무국장, 권기원 친목회 사무국장 등 10명이며 권영준 동정공파회장과 권기수 별장공파회장은 개인 불일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권기원 사무국장의 사회에 따라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권영진 회장은 인사말에



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안동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탈출공연장 일원에서 2026년 봄꽃축제를 개최하는데 날씨 관계로 벚꽃이 아직 피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권기원 사

무국장은 최근 권기호 고문이 승용차에 발허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권재주 원로원의장과 함께 문병을 갔다 왔다고 보고했다. 권오의 대총회 사무국장은 "부정공파 주최로 오는 4월 18일 경북 영덕군 영해면에 유문화예술회관에서 오봉공 학술발표회가 있으며 또 오는 5월 4일에는 부정공파 주관으로 안동에서 우항계가 개최함으로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친목회는 홀수 달 첫째 주 금요일 저녁에 모여 회원은 12명이다.

이날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